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김정준 박사는 영국의 Edinburgh 대학에서 구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그리고 학장으로 섬긴 한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다.

## 1. 야웨문서(J) 창조설화의 위치

한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에 의하면

구약성서에는 두 개의 창조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1장의 창조설화는 제사문서 (P-Priestly)의 기사이고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설화는 야웨문서 (J-Jehovah)의 기사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서비평학을 용납지 아니하는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 들은 이 두개의 기사가 다 모세의 기록이요, 이중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강조 때문이라 생각하며, 창조설화를 문자 그대로 믿기를 요청하고 있다. <sup>1</sup>

그러나 성서해석에 역사비평, 문학비평, 본문비평 등 비평학을 용인하는 성서학자들은 창조설화가 두 개 수록된 역사적 사정과 신학적 사정이 각각 있었기 때문에 창조라는 한가지 사건의 강조가 아니라 창조설화가 지니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다르며, 그 다른 각도에서 해석이 하나님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sup>2</sup>

“창세기가 구약성서 첫머리에 나왔으니까, 이 기록이 구약성서 모든 책 중 가장 먼저된 기록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신약성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사도행전보다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주전 586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 즉, B. C. 6세기 말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비교적 후대문서이다. 이에 비하여 2장 이하의 창조설화는 J 문서 기자가 활동한 B.C. 950년경에 기록된 문서로 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연대와 2장 이하 창조설화의 연대는 적어도 400년의 상거가 있다. 즉 2장 이하의 기록은 1장의 기록보다 400년 일찍 기록되었다. 연대가 이렇게 차이를 가졌기 때문에 두 창조설화의 동기, 역사적 배경, 설화의 구조, 표현, 강조점, 그 신학사상이 각각 달리 나타나 있다. <sup>3</sup>

1) 동기 에서 보면 1장의 P 문서는 포로민이 되어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창조신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본래 가졌던 창조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며, 특히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안식일 지키는 자기들의 본래의 신앙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조설화에 하루, 이틀, 셋새 동안 일하고 이레째 날 쉬는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도 있는 것이라 함으로 안식일을 지키게 함이었다. <sup>4</sup>

그러나 J기자의 창조설화의 동기는 창조설화가 단순히 세계와 만물과 인간의 창조사실을 알리는 지식을 전달하려 함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으뜸되는 인간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야 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인간과 그의 거주지인 에덴 동산 얘기를 중심하고 인간의 본성을 밝히려고 기록했다. <sup>5</sup>

<sup>1</sup>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1. (김정준 박사는 영국의 Edinburgh 대학에서 구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구약학 교수로 그리고 학장으로 섬긴 한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이다).

<sup>2</sup>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1.

<sup>3</sup>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1.

<sup>4</sup>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

<sup>5</sup> 김정준. **울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

2) 역사적 배경은 1장이 포로시대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 사정이 배후에 깔려 있으나 제 2장 이하의 창조설화는 B.C. 10세기 솔로몬 당시 또는 그 직후의 역사적 사정이 배후에 깔려 있다. <sup>6</sup>

3) 창조설화 구조에 있어서도 1장 설화는 신앙고백 형태로 기록되었고, 2장 이하 설화는 서술문학 또는 고발문학의 형태를 취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을 전달하는 구조를 자지고 있다. <sup>7</sup>

4) 이 두 설화에 사용된 표현에도 1장은 바벨론 신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화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바벨론 신화와는 다름을 나타내고, 또한 포로시대에 활동한 제 2이사야가 이사야 40-5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신앙을 표현하는 특수용어인 “바라”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 2 장은 고대 신화적 메아리를 많이 이면서도 “바라”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으며, 창조 자체보다 창조된 인간의 실존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sup>8</sup>

5) 그 강조점에 있어서도 1장의 창조설화에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났고 2장 이하 설화에는 인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것이 P와 J의 신학적인 특징이다. P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현실적 삶도 제의 또는 예배와의 관련에서보는 경향이 짙으나, J 문서는 인간의 인간성을 그대로 말하면서 그것이 죄를 짓게도 되고 복을 받는 길도 된다고 한다. J가 인간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그 세속성을 다루고 있음으로 여기에 인간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나타난 동시에 인간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있고 따라서 무엇이 인간 질서와 공동체를 파괴하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간상을 회복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J 기자는 인간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사고한 최초의 사람이다. P가 신학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다룬 사람이라면 J는 신학적인 인간학을 다룬 사람이라 하겠다. <sup>9</sup>

J와 P사이에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해도 P의 창조신학을 형성짓는 자료를 J가 제공했고 이 J의 창조신학이 이스라엘 신학의 대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J를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학자(P. Ellis)라 함은 적절한 말이다. 그의 관심이 인간을 위한 인간 관심이라는 휴머니즘의 입장이 아니고 신을 위한 인간 관심이라는 신-인간학적(Theoanthropocentric) 관심임을 볼 수 있다.

<sup>10</sup>

## 2. 야웨문서(J)의 역사적 배경

J의 시대는 대테로 B.C. 950년이라 함에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B.C. 950년경은 솔로몬 왕의 치세시대이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시대였다. 이 황금 시대는 단순히 정치사적, 경제사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전무후무한 황금시기를 이룩했다. J 기자가 관심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로서 기초가 잡혔을 뿐 아니라 강력한 주권 국가로 당시 중동세계를 지배할 만치 큰 세력을 떨치게 된 시대이다.

“솔로몬이 자기의 적이 될 만한 사람을 모조리 숙청하는 일종 유흥의 구테타를 거쳐 정권을 장악했

<sup>6</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

<sup>7</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

<sup>8</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

<sup>9</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2-43.

<sup>10</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3.

지만 ..... 왕의 권한을 것처럼 무자비하게 행사한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치적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한 G.W. Anderson의 말은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를 잘 말해준다. J 기자는 이러한 솔로몬의 화려한 정치적 업적을 칭송하는 말보다는 그를 비판하는 정신에서 그의 고대로부터 전승된 각종 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재해석하고 있음을 본다. Gunneweg은 그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의 치적과 그의 죄악을 대조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솔로몬이 무죄한 자를 마구 사형에 처한 것은 복수 행위라기보다 오히려 그의 정치적 생명을 안전케 하기 위함이었다”고 함은 정권을 위하여 인간의 생명을 불법하게 희생시켰다는 말이다. <sup>11</sup>

둘째, “솔로몬이 자기의 국내의 정적을 외국의 원수들보다 엄하게 다스렸다”고 함에서 솔로몬의 관심은 온통 그의 정치적 권력의 유지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솔로몬이 자기 궁전과 성전을 세운 것은 그의 업적 중 특기할 만한 일인데, 그의 궁전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왕 자신의 주권아래 있다는 인상을 주었으며, 그의 궁전 현관에 큰 홀을 지어 백성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함에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며, 특히 가나안과 주변 나라 군주들이 가졌던 생각을 모방하여 왕은 신의 아들임을 보임으로서 자기 권력의 절대성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이고자 했다. 이상과 같은 솔로몬의 권력의 절대성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웨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 된다. 그의 권력신장과 유지를 위하여 이방의 종교도 자유롭게 용인하는 정책을 취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 고대 이스라엘 전승에서 강조되어 온 바와는 다르게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의 역사적 결단으로 역사를 형성한다”고 행각했고,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고조하여 나나님으로부터 오는 간섭이나 그 인도를 부정했다. <sup>12</sup>

J 기자는 그의 창조설화를 통하여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복종하는 인간의 참된 모습보다는 여기에 도전하는 인간의 범죄,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의 본질, 인간이 취할 올바른 책임성 등의 문제를 대담하게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문화적 서술로 파헤치고 있다. J 기자는 이스라엘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연유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괴리 현상”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근거와 그 사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표시했다. J 기자는 솔로몬의 정치적 성공으로 인한 그 황금시대 형성 배후에 깔려있는 독재자적인 권력의 횡포, 부와 사치의 결합, 국가 재원 낭비의 극치 (왕상 4:22-23), 강제노동 및 과도한 징세제도 등으로 백성들의 원한과 불평을 친히 듣고 있는 것을 J 기자는 잘 안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실제로 체험한 J 기자는 그의 창조설화에서 하나님 주권에 도전한 인간의 타락과 반역을 그 근거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J 기자의 역사적인 배경이 창조설화에 나타난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알려주기에 충분한 근거다. <sup>13</sup>

### 3. 야웨문서 설화의 인간 관심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J 문서인 14개의 설화가 있는데 그 예로 1) 가인의 후손에 관한 기사 (창 4:17-24), 2) 노아 홍수 (창 6:5-8, 7:1-10, 12, 17a, 22-23; 8:3, 6, 8-13, 20-22), 3) 바벨탑 설화 (창 11:1-9) 등이다. <sup>14</sup>

<sup>11</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4.

<sup>12</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5.

<sup>13</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6.

<sup>14</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46-54

#### 4. 야웨문서의 창조설화와 인간

1) J의 특이성: J 기자는 창조설화를 그의 기록 제일 선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창조가 모든 것의 원초적인 사건이란 의미의 시간적인 서열상의 위치보다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인간이 그 우두머리를 차지한다는 의미상의 서열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창조설화는 P처럼 혼돈세계와 그 창조된 물체를 먼저 말하지 않고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만물을 그의 동료 피조물로 보며 인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깨어질 때 죄가 들어오고 인간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P 설화처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피조물로서 서로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오늘의 생태학적 원리가 이미 J 기자에게서 찾을 수 있다.<sup>15</sup>

J의 창조기사와 P의 것을 대조하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위업을 찬양하기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 본성, 위치, 사명, 삶의 방식, 그의 윤리의식 등 인간 자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관심되어 있음을 본다. P는 인간의 존재 양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함으로 이 “형상”에 대한 해석을 인간의 정신적 가치, 윤리적인 가치 등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J 기자는 사람의 형상에서 하나님을 상상케 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보도록 기록하고 있다.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다 할 정도로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실재와 활동을 알리려 한다.<sup>16</sup>

P는 인간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과업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해서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을 말하지만 J는 인간을 맨 먼저 창조했다고 함으로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모든 피조물의 창조는 인간과 관계에서 의미를 지니고 인간이 이름을 지어 줄 정도로 인간과 대화관계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P는 만물에서 인간으로 가는 방향이지만 J는 인간에게서 만물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 주어 시작과 종말이 다름을 보여준다. J에서는 인간의 창조가 흙으로 만듦으로 인하여 인간의 연약성이 본성이 되었음을 밝히며, 만물이 하나님께 종속해서 살아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P는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이 인간에게 주어지서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라 함과 만물, 곧 자연을 그 자체의 존재 의미보다 인간의 도구와 소모품으로 창조된 것으로 알리고 있다. 그러나 J 기자에게서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더 앞세웠고, 에덴동산의 설화를 소개함으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청지기 직책을 주었다는 것과, 이 자연과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돌보아 자연과 인간의 협력관계를 가져야 함을 말했다. P에서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인간의 식물로 주었다(1:29)고 했으나, J 설화에서는 음식물의 재료를 제공함보다, ‘에덴동산’이란 말로써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줌과 그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서 자연은 인간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결단과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삶의 바탕을 알리며, 만물 안에서의 인간 의기가 무엇인가를 부단히 반성시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P에게 있어서는 창조 이전에 혼돈질서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으로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진 것을 말했으나, J에게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한 에덴동산을 그의 삶의 환경으로 주어 세상의 질서를 책임질 사람의 사명을 밝혔고, 그 질서가 유지될 때 에덴은 항상 에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이 에덴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됨은 인간과 자연에 부여한 하나님의 창조 의미를 보며, 인간이 창조자가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하는 결단을 함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러므로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것을 말하고 있다.<sup>17</sup>

<sup>15</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4.

<sup>16</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4.

<sup>17</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5-56.

P의 창조설화에는 인간의 죄와 이 죄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창조의 세계는 다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J의 창조설화에는 에덴동산이 아름답다고 했지만 인간 자신의 잘못 판단함에 의하여 이 동산은 수치스러운 일, 유혹하는 일, 죽음에 대한 공포, 상하는 일, 고통받는 일, 저주 등 무서운 곳으로 변해버렸음을 보여준다.

P에서는 안식일을 말했지만 J에서는 인간의 행복은 남녀 간의 애정에서 오는 것이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성의 신성성과 그 행복성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남녀의 성의 일치성이 이 설화의 관심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라는 입장에서 이 설화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 J 기자는 남성, 여성 어느 한쪽의 우위 문제를 생각한 사회학자라기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평등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 신학자로 성의 일치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요,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자세임을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된 것을 말하나, 이는 남자의 종속물 또는 부속물의 의미가 아니며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 우위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서로 보충적이며 둘이 하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서고, 이 둘의 조화와 결여 없는 협조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원리에서 남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J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 완전한 인간은 “둘이 한몸을 이룸”으로 되는 이치는 1+1=2가 아니라 1+1=1이란 창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여자를 “내 뼈 주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함은 남자의 뼈로서 만들었다는 이유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의 뼈나 살은 여자의 뼈와 살과의 하나됨이 없으면 남자를 이룰 수 없고, 여자도 남자의 뼈와 살과의 하나됨이 없이는 여자가 될 수 없음을 말한다. 이 J 기자의 견해같은 남녀 평등 사상은 달리 찾아볼 수 없다.<sup>18</sup>

Von Rad는 이것을 이렇게 표시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은 실제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원래 모습이라고 함이다. 그래서 저들은 반드시 하나로서 존재해야 하고 운명적으로 저들은 서로가 상대방에 종속했다 함을 말한다. (Ron Rad, Genesis, P. 825)<sup>19</sup>

이러한 남녀를 기본으로 한 인간 이해는 P 창조설화에서는 볼 수 없다. 여기 J 기자가 인간의 본상을 밝혀주어 역사적인 인간의 문제는 남녀 공동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한 남자로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다” (왕상 11:3)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원리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J 기자가 이 창조설화에서 고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20</sup>

2) 에덴 동산설화: 에덴 동산 설하는 동산 자체의 의미보다 이 동산에서 되어진 아담과 하와와 뱀의 삼자 간에 생겨진 사건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에덴(낙원)을 비에덴화시키는 요소인 죄의 문제가 중심이다. 본래 이 창조설화를 기록한 J기자는 후대에 나타날 기독교 신학의 “죄론” text 로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J기자가 당시 솔로몬 치하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인 유다 국가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 솔로몬의 합리주의 아래 구상해 낸 인간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인간의 정치적 나라로 변질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가를 J가 당시 그들의 동지들

<sup>18</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6.

<sup>19</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7.

<sup>20</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7.



에게 알리고자 의도적으로 기록한 설화라고 볼 수 있다.<sup>21</sup>

J 기자는 이 동산 설화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낙원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는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라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인간과 자연이 복종하고 서로 마찰이나 대립이 없이 서로 친목하고 화해하는 나라임을 알리고자 했다. 이사야가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 상을 그릴 때도 에덴동산 설화로서 말했다. 즉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살쥔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 젓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먹는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사 11:6-8) 는 자연과 인간과의 완전 화목과 조화가 된 상태를 보여주는 곳으로 묘사했다.<sup>22</sup>

J 기자는 본래 창조 당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동산이 왜 파괴되고 인간은 왜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를 이 동산설화 내용에서 밝히고, 그러한 파괴의 요소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로 성립됨이 불가능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J 기자는 그 파괴적인 요소가 무엇이나 함을 이 에덴설화에서 알려주려고 한다.

이 설화는 낙원상실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상실의 원인이 되는 ‘죄’란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죄의 동기, 죄가 범해지는 과정,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첫째,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는 ‘욕심’ -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세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으로 왔다. ‘먹음직하다“ 함에서 미각적인 유혹, “보암직하다“ 함에서 지각적인 유혹, 그리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함에서 가능성의 유혹이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동기다. 이런 욕심은 어디서 온 것이냐? 아담 자신 속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의 밖에서 들어온 것이냐? 인간의 욕심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아담의 경우는 자신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을 알려준 “뱀“ 의 존재를 언급함으로써 죄의 동기는 내적이기 보다 외부로 들어와서 충동을 일으켜 내적인 자기 결단을 거친 욕심으로 변한 것이다. 이 외부적인 것을 “뱀“이라고 했다.<sup>23</sup>

뱀이 어떤 존재냐 함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C. Westermann 해석대로 “ 뱀은 악의 화신인 사탄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범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괴리를 가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악의 유발자는 인간 자신 속에 있는 자기중심의 이기심, 신의 명령을 망각하고 또는 거부한 창조주께 대한 불복종성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불복종성을 창조했는지 설명할 수 없으나 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했지만, 뱀 그것은 피조물이라도 그것으로 상징되는 죄의 유발적 요소를 하나님의 창조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 자신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심, 보고 싶어 하고 먹고 싶어 하며,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교만이라 하겠다.<sup>24</sup>

둘째, 이 죄가 인간에게 작용하는 과정은 호기심이 담긴 의심으로 시작한다.

<sup>21</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7.

<sup>22</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7-58.

<sup>23</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8.

<sup>24</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8-59.

셋째, 이 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그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죄라 볼 수 있다.<sup>25</sup>

죄는 유혹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에게 대한 불신감으로 옮겨가고 또한 여기서 신의 명령의 부당성 인정에서 그것을 불복하고 인간 스스로 판단해도 된다는 가능성을 얻고, 여기서 신에게 도전하여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다음,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 자신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자가 권력으로 모든 장애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되어 결단한 것이다.

J기자는 이렇게 뱀과 여자와의 대화 과정과 그 결과에서 인간이 죄를 어떻게 범하는 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에덴의 상실이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과 진실, 공평과 정의가 질서가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허물어지고 말았음을 보이며,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 가야 할 땅에는 인간의 고된 생활과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sup>26</sup>

J 기자가 이렇게 죄의 동기, 과정,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설화문학체로 알려주고 있음은 그가 살던 솔로몬 시대가 비록 이스라엘 역사상 번영과 안정을 누린 황금시대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동산과 같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본래 모습이 아니고 그 에덴은 인간의 교만, 불신, 반역, 이기심, 명예욕, 권력욕, 재물욕, 사치 등의 죄로 인하여 상실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역사 현실에 대한 신학적 비판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솔로몬의 국가건설, 경제부흥, 생활안정, 철통같은 군대조직과 장비와 훈련으로 된 안보는 솔로몬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혜”에 근거한 결단의 결과요, 또한 그것은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에까지 끌어올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솔로몬의 황금시대 낙원은 결코 영구적인 보장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에덴동산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다. J 기자는 솔로몬왕권이 만든 에덴은 상실되고 말 것을 내다 본 사람이다. 에덴설화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 권력은 망한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이다.<sup>27</sup>

5. 결론: J 기자의 창조설화는 이상에서 본좌와 같이 철저하게 인간을 중심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는 흙으로 되었고, 그 흙이 창조자 하나님의 생기(ruah)를 받아서 살아 움직이고 무엇을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생명(nephesh)이 되었다고 함에서 인간 존재의 자연적인 요소와 생명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창조시에 이미 밝혀 두었다. 이것은 인간이 그의 삶속에서 육과 영의 부단한 대결과 긴장 사운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임을 밝혀주고 이러한 인간이 살 곳은 인간 스스로가 발견한 공이 아니고 창조자 자신에게서 받은 에덴 동산이라는 것, 이 동산에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여는 나무가 동산 한복판에 있다고 함으로써 인간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 자연 안에는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 자유의지가 제약을 받을 것이 있음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주어서 인간을 지어주신 창조주를 창조 당시부터 무시할 수 없고 그와의 관계를 가지고 그가 원하는 바와 원치 않는 바를 결단하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밝혀 두었다.<sup>28</sup>

<sup>25</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59.

<sup>26</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0.

<sup>27</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1.

<sup>28</sup> 김정준. *율법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2-63.

이 계약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도 창조 당시부터 주어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죽음은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 대결에서 인간을 앞세우고 창조주를 무시할 때만 온다는 것을 밝혔다. 그런데 이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완전히 인간이 됨을 알렸주었고, 이 두 인격이 한몸을 이루어 에덴동산에서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가도록 허락받았다.<sup>29</sup>

J 기자의 문제는 “인간이 뭐냐?” 란 인간론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가 살고 있었던 당시 역사적 현실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창조주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며, 그의 창조 당시에 가졌던 인간의 기본 의무와 책임을 무시해 버린 죄와 악의 실재자로 되어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과 범죄의 기록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함이었다.<sup>30</sup>

솔로몬의 정치적 성공시대, 그것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에덴동산으로 생각하게 했다. ‘솔로몬의 영광’ 이란 말이 후세까지 전해질만큼 번영과 환락과 사치와 만족한 삶의 연속이었던 그 황금시대도 영원히 계속되지 못할 것을 J 기자는 에덴설화에서 그의 청중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솔로몬의 주권이 절대화 되어 국가는 번영하고 생활수준은 높아졌으며 산업이 확장되고 국가방위는 공고하며 문화는 창달하여 중동 세계를 지배하는 아름답고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백의 간교한 유혹은 이미 솔로몬 왕권 깊이 파고 들어가 하나님의 금단의 과일을 따 먹었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에덴이 아니라 거기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창 3:18) 수고와 고통과 땀과 죽음이 있는 곳이 되며, 나라는 갈라지고 같은 백성끼리 대립해서 싸우는 역사를 만들었다. J 기자는 그 시대를 비판한 위대한 고발문학가인 동시에 그의 문학 속에는 이스라엘의 기본 신학인 신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무엇이며,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인간 사회는 올바른 질서를 가지며 이 올바른 질서가 있는 곳에 인간의 삶은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sup>31</sup>

여기 J 기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회실정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모든 인간의 실존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역사안에서 최상급으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코 인간 그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관심하시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J 기자를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본다.<sup>32</sup>

<sup>29</sup> 김정준. **울렷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3.

<sup>30</sup> 김정준. **울렷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3.

<sup>31</sup> 김정준. **울렷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4.

<sup>32</sup> 김정준. **울렷서: 예언서 연구** (한국신학 연구소 발행, 1988), 64.